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

■ 예수의 탄생을 외면 했던 사람들

- 합법적 절차라 해도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얻은 경우는 없었을 까?.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얻은 나의 행복은 죄악이고, 타인의 불행을 외면한 나의 행복은 부도덕하다. 그게 사회의 정의와 도덕의 바탕이다. 그게 진정한 복음 정신이기도 하다.

- 정치적 중립은 가치중립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 정치이 김근태

-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과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 고대 그리스 정치인 솔론

-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도 한 켠 열어주고 잠시라도 그들 옆에서 최소한 무언의 위로와 격려를 보낼 수 있어야 하기 예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 야 우리는 그 사건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무엇이 진짜 명예로움인가

-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마음 씬씀이가 아닐까 싶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마태1,20) 라는 천사의 통보와 당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당혹스러운 사건을 뿌리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 명예살인이 성행하던 그 시기에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기전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 하느님나라의 비유를 잘못해석하면 ‘비’겹하고 ‘유’치해진다

- 예수 가르침의 핵심인 하느님나라가 이 땅과 완전히 다른 별도의 공간도 아니고 사후 시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먼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의 행적과 말씀안에서 이미 작용하기 시작한 하느님나라는 아직은 그 작용이 미약하여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 크게 작용하여 마침내 때가 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하느님나라의 진정한 의미다.

- 하느님나라의 기쁜 소식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큰 기쁨을 준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으되 알아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약속이다. 그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만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나라의 선포와 구현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 물질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보물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 하느님나라 또는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얻었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물어야 한다.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은행에 저축하듯이 하는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올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바로 하느님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입으로만 구원을 외치는게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고 내 삶으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자기 구원에 대한 천박한 집착의 신앙을 '비겁한 신앙'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

- 영생은 불로장생과 불사의 꿈이 아니다. 나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 앨버트 놀런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이 자칫 어떤 비결(秘決)로 전락할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믿음은 어떤 마력이나 주술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나라를 위해 맺고 자르는 하나의 결단이다. 나의 탐욕과 집착을 잘라내는 결단이다. 권력과 재산을 추구하던 기존의 왕국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느님왕국으로 대상을 옮겨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하느님나라가 만일 하나의 환상이거나 알팍한 보상심리의 투사에만 매달려 있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무력한 것이 될 뿐이다. 믿음은 연민 없이 있을 수 없다. 예수가 당시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던 것은 '사랑과 봉사의 나라'이다. 사람마다 사랑받고 존중되는 인간적 형제애의 나라이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

- 내 영혼을 거두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게 오로지 나의 안위와 은총의 구현이라는 닫힌 시각을 벗지 않으면 껍데기일 뿐인 신자이고 신앙공동체라는 빠져린 반성이 필요하다.

■ 유혹은 산들바람처럼 불어온다.

-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까닭은 '나처럼 살라라'라는 모범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인류의 삶과 영성의 주권자이자 또한 모델이다.

-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 욕망에 흔들리는 나 자신에 대한 경각심과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준열한 통찰이다. 그 유혹은 바로 소유의 욕망이다.

- 영적 자아의 실현이 물리적 풍요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기업의 이윤 추구에는 반드시 공정한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각이 없다면 기업은 오로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비 인격적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따라라 하며 규범을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존재가 지닌 핵심이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모범을 보였는지에 눈을 밝히고 따라야 한다. 그게 없으면 예수는 그저근사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다.

- 유혹은 분명 나를 강하게 길러내는 자양물이기도 한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과, 예수의 유혹이라는 극적 사건은 내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그 해결책도 마련해 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광야사건과 유혹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 예수 기적의 진짜 의미

- 진정한 기적은 사랑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은 예수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아니었을까? 그 어떤 사명과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다.

- 예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읽어내지 못하고 오로지 기적 행위 자체에만 꽂혀 있으면 그 의미를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물이 주인을 만나니 발그레 낮을 붉혔네.’ - 포도주의 기적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 바 이런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곳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 열두 제자가 내려놓은 것

- 제자들이 변변찮은 인물이었다는 건 예수의 복음 자체가 강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들, 억압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 제자들이 사도로서 존경받는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예수 타령을 반복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이다.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 살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건 따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념과 교조로만 건조하게 남은, 또는 오로지 기복과 청원의 신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진정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서 함께 살며 겪은 모범을 따른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제자들의 삶의 진면목을 통해 나의 실천 신앙을 다잡아야 한다.

- 제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삶이었고 가르침이었다. 그들이 목격하고 함께한 예수의 삶이 이들을 이미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던 제자들이 예수의 삶에 녹아들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이 처형된 후에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했고 의심하는 동료까지 보듬었던 것이 아닐까?

■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 예수는 그 옛날 출생성 같은 남성 주도 사회에서도 과감하게 영성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했다. 예수는 정치 경제적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있던 여인들이 그 종교적 규율과 사회적 관습을 타파하도록 격려했다.

■ 포도밭일꾼과 품삯이야기의 숨은 뜻은

• 포도밭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한 것은 노동 단위 시간당 얼마라는 효율성을 근거로 한 셈법이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 생계는 해결해줘야 한다는 상징적 비유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누구나 모든 일꾼들에게 무조건 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데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도 삶의 방안을 마련해주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이 비유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늦은 시간에 일꾼을 구하러 나간 간 합리적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다 싶다. 포도밭 주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은 바로 측은지심이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진다.

■ 가진 것을 모두 털어넣는 충성심보다 중요한 것

• 예수가 칭찬한 것은 과부의 그 마음이 아닐까? 가진 것을 몽땅 털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남 보란 듯 교회의 기둥에 머리를 대고 껌데기뿐인 기도를 하는 율법학자들의 허식을 비판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겸손한 기도를 칭찬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진 것을 몽땅 털어넣는' 충성심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예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 유대공동체에서 고아나 과부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돕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의무였다. 남 보란 듯 많은 돈을 현금궤에 넣은 부자들은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 착한 과부의 봉헌에만 눈길이 가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미화하면서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두렵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사회적 연대를 예수의 사랑 안에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건 전선이 아니라 의무인데도 말이다.

• 과부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진 것 모두 바치는' 데에만 방점 찍는 압박함을 버려야겠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자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심장을 갖도록 하는 게 나의 몫이다. 가진 것 모두 바치는 곳이 행여 교회여야 한다고, 현금궤라고 강변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정작 내가 그들에게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진화'에 마음써야 한다.

■ 교회를 신전이 아닌 시장으로!

• 교회가 건강한 시장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도 건강해지고 도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사랑의 실천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책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스스로 양산하는 그런 병원이나 학교 또는 기관들을 운영하는 교회를 보고 예수가 뭐라 하실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 예수가 재림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갈 것 같은가? 교회? 천만에! 나는 예수는 바로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달동네에 재림할 것 이라고 확신한다. 베들레헴의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더 이상 부끄럼움도 모르는 뻔뻔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 교회는 진짜 제대로 된 시장이 되어야 한다. 복음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심장의 굳은 살을 도려내고 부끄러움을 자각하며 진짜 사랑을 실천하도록 다짐해야 한다.

■ 무엇이 참된 우정인가

• 말로는 형제나 벗이라 떠들면서도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지위나 재산의 차이가 크면 서로 반목하고 뒷공론을 일삼는다.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복음서의 이 대목에서는 교회 안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우리 자신의 쯤스러움과 천박함을 반성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 그들은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했기에 마음을 모아 행동에 옮겼다. 이해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무작정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가장 확실하고 가까운 모범이 바로 이 사건 아닐까? 덧붙여,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조차 엉뚱하게 혹은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할 일이다.

■ 치유의 기적? 측은지심부터 배워라!

• 치유의 기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기적의 대상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자들이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인권은 거의 무시되었다. ‘가난한 여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치유의 기적은 바로 가난한 민중들과 억압속에 살아온 약자들에 대한 측은지심의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예수의 치유의 기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는 바로 공동체의 반성과 사랑이다. 그 당시 장애나 질병은 자신의 죄 혹은 조상의 큰 죄 탓이라고 여겨서 장애인이나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피하고 비난했다. 때문에 그들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었을 것이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그 사제들이다. 병이 나았다는 걸 사제에게 보여야 그가 판단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장애인과 환자들을 사제가 혹은 교회가 차별하고 억압한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걸 단순히 당시의 사제나 교회의 탓이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들 나름의 문화적 전통과 규범 탓이 더 크다. 하지만 그걸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결정하는 판관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며 즐기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일종의 사회적 생사여탈권을 전절대권력인 셈이다. 그가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사회적 삶의 존망이 달렸다. 교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서양 중세의 역사에서 그런 모습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잘 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칼자루 삼아 망나나 춤을 추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일어나 모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일들이 바로 기적이다.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자세와 같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닦아가는 일이 내가 실천 할 수 있는 사랑의 첫 단추가 아닐까? 그건 바로 삶의 예의이고 으리이다. 예수가 내게 던진 화두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 백인대장에게서 배울 것은 치유된다는 믿음 이전에 자기 종이지만 그가 겪는 고통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돕기 위해 겸손과 예의를 다 갖춰서 예수를 찾아간 그 마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고 전도한다고 외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신자 수가 늘었다고 하느님을 축복을 받았다고 행복해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명의 신자더라도 진정 하느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모든 이를 정당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다.

■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진짜 의미

-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론 예수의 측은지심과 능력, 은총의 결과지만 우리도 그 마음을 따르면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것을 따라 실천하라고 보여준 모범이지 않을까? 내 주머니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마련하면,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가능한 기적이다. 교회공동체가 바로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공동체가 마련된 것이다.!

■ 신앙이전에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 얇이 삶으로 내재화되지 못한 지성이나, 술수와 이해관계를 사회적 질서와 안녕으로 포장하는 권력이 저지르는 횡포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이 받는 냉대와 멸시는 당연한 몫이라며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 '마음의 거리가 줄어드는'건 바로 동정과 공감이다. 그게 소통이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혹은 머리로만 통하는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야 서로 통한다.

-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예수는 당신의 존재를 선언하고 그 존재성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선언이나 율법으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의 진정한 의미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입에만 걸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들어 댄다. 그것은 부끄럽게도 하나의 프로 파간다다. 즉 선전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값싼 은총일 뿐이다. 그것은 은총도 될 수 없다. 어설픈 자기만족일 뿐이다.

- 예수가 가르친 기본 가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로운 사회다. 누르는 자도 눌린 자도 없는 자유로운 사회다. 예수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벗이었다. 예수에게 온갖 시비를 억지로 붙여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던 율법학자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다

시 한 번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그리스도교는 단지 하느님을 숭배하거나 하느님을 창조자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그리스도교적 윤리를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골수 로마앞잡이가 나무위에 올라간 이유

- 드레퓔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다가 망명까지 해야했던 에밀 졸라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고 있다. 나는 자캐오를 보면서 그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자캐오의 열성을 찬미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의 자캐오는 무시하거나 억압한다. 그것은 일느바 '유체이탈'의 모습이다.

■ 무엇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가

-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가 선포의 주제로 삼았던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되새겨야 한다. '하느님나라'는 특정 공간 개념이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정신과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완성된 왕국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삶의 양식'이다. 달리 말하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고 절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가 가르친 '하느님나라'는 권력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세계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한 '하느님나라'의 삶으로 초대한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메시지, 곧 복음이며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다. 그 삶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따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삶이다. 참된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자체가 이미 행복이라고 해야 한다.

■ 기도, 하려면 제대로 하자

- <주님의 기도>는 이처럼 간결한 것 같지만 자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심오한 의미와 의무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진대 예수가 직접 가르친 이 기도문이 어찌 입에 붙은 암송으로, 반복으로 혹은 몇 번 바치는 영적 선물등으로 가볍게 치부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결한'기도일 수 있겠는가? 제대로 하자면 1시간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하나하나 음미하고 새기면서, 무엇보다 내 영혼의 울림이 그 기도예 응답하면서 지향을 새롭게 하고 실천의지를 돋우는, 그리고 절대자인 하느님께 의탁하는 겸손을 다듬는, 그래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기도의 참된 뜻이자 힘이라고 생각한다.

■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과연 나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구원을 얻기 위해 부활을 믿으려, 또는 수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삶과 구원이 수반되는 것이지 그걸 얻기 위해 관념적으로 또는 암기하듯이 머릿속에 쑤셔넣는 게 아니다.

- 예수는 3년의 짧은 공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는 과거의 단

힌 세계에서 벗어나 열린 세계로, 증오와 투쟁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 전체를 통해서 역설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력과 갈등할 수 밖에 없었고 많은 미움을 받았다. 그것은 고스란히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사건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질서와 제도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배타적 복음의 이해에 대한 예수의 질타는 기존의 권력과 질서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이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하느님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야만 하느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예수의 대담한 복음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위험한 도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